'탕탕탕' 5·18 헬기사격 증언 이어져

전두환씨 형사재판 시민 6명 증인신문
전 유족회장·병원 실습생·고3 학생 등
"39년 전 광주 곳곳서 헬기사격 목격"

"'탕탕탕' 하는 소리가 들려 하늘을 쳐다보니 헬리콥터가 떠 있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시민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증인들은 기억의 정도와 표현의 차이는 드러냈지만, 헬기사격 목격을 일관되게 증언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10일 오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전 씨는 재판장의 불출석 허가에 따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목격한 시민들이 증인석에 앉았다.

첫 번째 증인으로는 5·18의 산 역사로 통하는 정수만 전 5·18 유족회장이 나섰다.

정 전 회장은 "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 뒷길을 통해 집으로 가던 중 시신 1구를 목격했다. 당시 내 시야에 들어오는 군인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중에서 '탕탕탕' 하는 총소리가 들렸다. 쳐다보니 헬기가 공중에서 돌고 있었다. 재빨리 나무 밑으로 숨었다"고 당시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MD 500 기종 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5·18 기록자, 걸어다니는 5·18 백서'로 불리는 정 전 회장은 1980년대 중반부터 국회와 정부기록물 보관소·육군본부·검찰·경찰·국군통합병원·기무사·해외 대학 등지를 다니며 30여만쪽 이상의 5·18 자료를 수집하는 등 관련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그는 "모 항공여단의 기록을 보면 '5월27일 폭도 2명을 사살했다'는 내용이 있다. 특정 항공대가 실탄을 싣고 광주에 출격했다는 기록도 있다. 어떤 군 기록에는 '로켓포를 쏴서라도 제압하라'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은 "39년 전 광주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 잘못한 일은 사죄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0년 5월20일~27일 계엄사령부 부사령관과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등의 헬기 사격 명령 기록 ▲1980년 5월27일 1항공여단 상황일지에 '05:10(시간) 광주 완전 점령, 전과 폭도사살 2명'이라고 적힌 기록 ▲계엄사령부가 '헬기작전 계획 실시지침'을 전투병과교육사령부에 전달한 기록 ▲전일빌딩 10층서 발견된 헬기 사격 탄흔(193개) 감정 결과 등도 헬기 사격 근거로 제시했다.

1980년 5월 광주 모 병원 응급실에서 실습생 신분으로 일했다는 두 번 째 증인 최모(여) 씨는 "당시 병원 밖 상공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다. 나가보니 헌혈 행렬 후미에 총을 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빗방울이 마른 땅에 처음 떨어질 때 처럼 바닥에 총탄이 튀는 모습을 봤다"고 기억했다.

당시 고3 학생 신분이었다는 홍모 씨는 "5월21일 금남로 시위 현장에 있었다.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옆에 있던 시민 1명이 계엄군이 쏜 총을 맞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겁이 나 양림동 집으로 향하던 중 총소리와 함께 상공의 헬기를 목격했다. 무서워서 인근 건물 처마 밑으로 숨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검사가 제시한 2종의 헬기 사진 중 39년 전 목격한 헬기로 UH-1H 기종을 지목했다.

또 다른 증인 최모 씨는 "5월21일 오후 2시30분께 불로동 인근 상공에 헬기 한 대가 떠 사격하는 모습을 봤다. '따르륵 따르륵' 소리가 났다. 헬기가 빙 돌면서 전남도청 방향으로 향했다"고 증언했다. 5·18 수습위원으로 활동했던 그는 "조비오 신부 생전에 그와 자주 만났다. 조 신부가 '헬기까지 동원해 사격을 해서야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나에게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전 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3일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최남규 기자

6.10 독립만세 운동, 그날의 함성 제93주년 6.10 독립만세운동 기념일인 10일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학생들이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소방청, 소방펌프차 오류 1020대 성능 개선 마쳐

이달 초 소방차 검사매뉴얼 개정해 사전예방

매연저감장치 수동작업을 진행할 때 소방용수가 뿜지 못했던 소방펌프차 1020대의 오류가 수정됐다.

소방청은 해당 소방펌프차 1020대 전체에 대한 전자제어장치(ECU; Electronic Control Unit) 프로그램을 수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방펌프 작동 지연 현상은 지난 1월 28일 경기도 구리시에서 처음 발생했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2월 8일까지 전국 소방차 3000여 대를 전수조사했으며 문제가 발생한 차량과 동일한 매연저감장치가 적용된 소방차 1020대에서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소방청은 당시 긴급하게 소방펌프를 작동할 수 있는 비상대응요령을 즉시 배포했으며, 지난달 29일까지 순차적으로 매연저감장치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관리(A/S)를 마쳤다.

소방청은 이달초 소방차 검사매뉴얼 개정을 마치고 새로 도입되는 소방차에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소방청 박성열 장비기획과장은 "다른 법률에 의해 새로운 장비가 소방차에 적용되는 경우 소방장비 본래의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초 도입단계에서부터 정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파키스탄 한마을 어린이 623명 HIV 감염

세계보건기구(WHO)가 에이즈(AIDS)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파키스탄 남부 신드주 라토데로 시에서 6주에 걸쳐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5세 어린이의 대부분인 무려 623명 이상이 HIV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어린이 감염자 수는 500명 선이었다. 총 감염자는 761명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파키스탄에서 어린이 HIV 감염자는 총 10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대부분 성매매 종사 어머니를 통해 감염됐거나 수혈 과정에서 감염된 경우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WHO가 이번 파키스탄 HIV 집단 감염사태에 "유례없는 일"이라며 충격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당국은 라토데로 이외에도 유사한 발병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근 마을에서도 조사를 시작했다. 결과가 나오면 감염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현지 경찰은 지난 5월 현지 의사 무자파르 강그로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체포한 바있다. 그는 라토데로에 있는 병원에서 오염된 주사기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키스탄 시골마을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WHO는 한 명의 의사가 이처럼 많은 환자들을 감염시켰다고 보기엔 석연치가 않다는 입장이다. WHO는 오염된 주사기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의 취약한 보건시스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WHO 파키스탄의 마리암 유누스 대변인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다"고 WSJ에 말했다.

WHO와 기타 국제기구들은 파키스탄 환자들을 위해 내년까지 HIV 치료제 기금 제공을 약속한 상태이다.

LA인근 대형 놀이공원에 들불…군중 대피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산타클라리타에 있는 거대한 놀이공원 '식스플래그 매직 마운티'과 '허리케인 하버' 워터 파크에서 9일(현지시간) 발생한 들불이 빠른 속도로 번져나갔다. 이에 수 백명의 관람객들이 짙은 연기와 재로 가득찬 공기를 피해 출구를 찾아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현지 소방대원들은 달아나는 군중을 진정시킨 뒤, 화염을 진화할 때까지 이동을 멈추고 잠시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로스앤젤레스 근교에 있는 이 거대한 놀이공원 두 곳의 운영진은 이 날 정오를 지난 직후에 관람객들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긴급 대피할 것을 공표했다. 하지만 30분 뒤에는 인근도로가 폐쇄되었으니 현 위치에서 몸을 보호할 곳을 찾아 대기하라는 소방대원의 말을 트위터를 통해서 전달했다.

놀이공원 탐방객들은 무려 260에이커나 되는 광대한 놀이공원의 정문 부분에서 진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공원의 맨 뒷부분까지 이동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친구인 직원과 함께 있던 레이첼 갤러트는 말했다.

소방청은 이 날 연기를 마신 사람들 9명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마른 풀과 관목을 태우며 시작된 들불은 20%정도 진화가 끝난 상태라고 발표했다.

나이지리아서 무장세력에 25명 피살

나이지리아 북서부 소코토 주에서 주말인 8일 지역 무장세력에 의해 살해된 25명의 시신이 9일(현지시간) 합동장례식을 거쳐 매장되었다고 현지 경찰이 발표했다.

경찰은 용의자 4명을 체포했으며, 그 중 한 명은 정신이상을 가장한 채 첩보원 노릇을 해온 여성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격은 북부 소코토주의 라바 지역에 있는 세 군데 마을에서 일어났다.

이브라힘 카오제 주 경찰청장은 기자들에게 이번 테러공격이 대규모 무장남성 부대가 저지른 집단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은 눈에 띄는 모든 사람들을 남김 없이 공격했다고 말했다.

또한 총격 후 피살된 사람들의 소와 양 수 백마리, 귀중품 들을 강탈해 갔다고 덧붙였다.

라바 지역에선 최근 몇 달동안 여러 차례의 무장 공격사건이 발생했으며, 수백명의 목숨이 희생되었고 공격 뒤에 집을 잃고 떠난 난민들도 많다고 지역 행정부는 밝혔다.

25명의 합동 매장식에서 아미누 탐부왈 주지사는 향후 이런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인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겠다고 선언했다.

현지 경찰도 무장공격과 테러방지에 주민 제보가 필요하다면서 주 경찰과 협조해서 대대적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